

군사정권 시절 강제징집·녹화사업 광주·전남 학생들 피해 가장 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45차 회의가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렸다. 정근식 위원장이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고 '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프락치(밀정) 역할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광주·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군사정권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등 반정부 성향의 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정신교육을 통해 학원 프락치로 활용하면서 갖은 협박과 고문을 가했는데 광주·전남 학생들의 피해가 유독 심했다는 사실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의 조사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공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 조사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개인별 조안자료 및 관리대상자 명부 2922명에 대한 자료를 비식별 처리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 명부에 작성된 징집대상 및 녹화사업 대상자 2922명 중 광주·전남지역 학생은 140여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남대 학생만 91명으로 지방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대 34명, 목포대 5명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피해자가 많았다.

특히 광주·전남은 광주일고, 살레시오고, 목포문태고·영흥고, 순천공고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들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고교때부터 동향을 관찰한 후 졸업후 곧바로 군대에 강제 징집하고 녹화사업으로 활용한 것이다.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은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돼 전두환 정권때 심화됐다. 독재 타도와 민주화 쟁취를 요구하던 학생들을 군대로 끌고와, 활동하던 조직과 동료들을 발설토록 하거나 심지어 허위 자백까지 받아냈다.

당시 보안사 명부 2292명 공개 전남대 91·조선대 34명 등 140여명 군대 끌려가고 프락치 역할 강요 전국 유일 고교생들도 대상자 포함 가혹한 고문·협박·폭행 뒤따라 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 침해"

사회와 격리돼 강제로 군에 끌려간 이들은 장기간 구금 및 고문, 협박, 회유 등에 시달리며 동료 학생들의 동태 파악 등 사찰 임무를 부여하는 '프락치' 행위로 강요받았다.

당시 조선대생으로 강제 징집돼 프락치 강요를 받은 김모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군대에 입대했는데 후가를 나오거나 전역한 학생들의 동향 파악을 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안대에 끌려가 당시 조선대 서클이었던 '이합회'의 활동과 김대중교수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 추궁받기도 했다.

전남대 재학 중 강제 징집 당한 이모씨도 "진양분실로 불려가 유학생간첩단 사건의 강모씨 소재 파악 임무를 부여받고 5일간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다" 말했다.

이들 외에도 조선대생이었던 김모·안모 씨, 전남대생 이모 씨 등이 군대로 끌려가 진술서·발성문·서약서 등을 쓰고 친구와 선후배들의 동향을 관찰해 보고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과 협박, 폭행도 뒤따랐다.

위원회는 이러한 강제징집 후 프락치 공작 사건은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녹화공작'에서 '선도업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바뀐채 1987년까지 지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몇 차례 강제징집·녹화사업·선도공작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실제에 대한 규명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정확한 피해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 규모와 함께 군사정권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강제징집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정부 주도 아래 더욱 정교해지고 폭압적이며 치밀해졌다.

진실규명 대상자 중 174명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 60%에 해당하는 107명은 경찰이 법령을 위반해 강제 징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명단 접수 즉시 국방부에 입영발생 지역 인연 및 예정시기를 보고했고, 국방부는 바로 입영부대와 입영 일시를 지령했다. 결국 모든 사항은 보안사령부 지시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됐고 부대배치 후 동태는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문교부(현 교육부)와 대학은 경찰로부터 명단을 받아 학칙 또는 직권으로 대상 학생들을 강제 퇴학 또는 휴학조치를 단행해 강제징집에 적극 협조한 정황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피해자 9명도 참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면서 "강제징집과 사찰의 임무를 강제로 부여한 프락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다"고 규정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피해자 9명도 참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면서 "강제징집과 사찰의 임무를 강제로 부여한 프락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다"고 규정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QR코드를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1310	2	나주시 문화로234, 1층 109호 [빛가람동, 풀러스] 61.71㎡ [감정평가기준내부인 테라에공사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확인요]	근린시설	490,000,000 490,000,000	비고
2022타경 66065	1	사용면적지: 정읍시 정읍면 정신로 681-10 [수곡리] 등적번호: 전북06바4034 기종: 덤프트럭 연식: 2016 [계기판에 우측측간주행 동쪽쪽 동경도표기부호로 표시된 바확인요]	자동차	120,000,000 120,000,000	모관: 광주남구승인 124-3 [송하동, 송원주차장] [010-3622-7261]
2022타경 67174	1	사용면적지: 광주 서구 팔영동 74번길 20 [상충동] 등적번호: 02주5804 차명: 카니발하이리 무전 연식: 2016 [보험사고이력 있음]	자동차	31,000,000 31,000,000	모관: 광주남구승인 124-3 [송하동, 송원주차장, 010-3622-7261]
2022타경 70194	1	사용면적지: 광주 서구 팔영동 70 105 동 1103호 [팔영동, 현대아파트] 등적번호: 616호 1421 차명: K7 연식: 2011 [감정인원장조 사시운행중 단정상태로 정상 운행 여부 확인 불가능한 상태. 보험사고이력 있음]	자동차	5,000,000 5,000,000	모관: 광주광산구 등적로 430, 병동 주차장 [010-4628-2670]
2022타경 73254	1	사용면적지: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24 3층 등적번호: 경남06로8655 기종: 덤프트럭 연식: 2015 [건설기계배터리방전으로 정상시동 작동여부 및 주행거리 등 확인하지 못함]	자동차	80,000,000 80,000,000	모관: 남구승인 124-3 [제3차 승권 주차장] [010-3622-7261]
2022타경 60401	2	화순군 동면 동리리 668 1068㎡ 등소 609 1061㎡ 화순군 동면 동리리 149-21 단층 264.0㎡ 지시외 부채 등 74.1㎡ [물건번호 2: 목책 2.3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향후 원상회복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2022.07.04자 사시 조회하신서참조]]	전 답 등식물권 근린시설	154,692,700 154,692,7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지시외 부채 포함], 제시외 부채 하우소매각 제외, 공부상지목책 2.3 전, 목책 3답이나, 현상항상 및 관리사 부지주 리이용중

●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취득요는 최고거래가격인내에 따라 결정할 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음.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2.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QR코드를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68330	1	광산구 무전대로 278-11, 105동 4층 401호 [우산동, 우산동한국아파트] 84.2801㎡	아파트	344,000,000 344,000,000	2022.11.10자 근린사무소 제출문건상 2022.11.9 기준 관리비 2,454,100원 미납된 상태
2022타경 1600	1	북구 설천로 320번길 25, 106동 5층 505호	아파트	178,000,000 178,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 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된 상태
2022타경 1693	1	광산구 팔영로 294-8, 204동 12층 1203호 [창덕동, 고실마을 광명에시앙]	아파트	436,000,000 436,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 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된 상태
2022타경 60401	1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56, 103동 7층 703호 [화순청천아파트] 59.99㎡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 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된 상태
2022타경 61084	1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30, 1007동 2층 201호 [월곡동, 영천마을주공아파트] 84.03㎡	아파트	311,000,000 311,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 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된 상태
2022타경 62445	1	남구 서문대로 678번길 7, 105동 12층 1206호 [진월동, 대주아파트] 84.41㎡	아파트	243,000,000 243,000,000	현황조사보고서상 2022년 1월부터 관리비 미납된 상태
2022타경 62582	1	북구 상천로 108, 105동 11층 1104호 [두암동, 현대아파트] 59.84㎡ [이상영 1/2지분]	아파트	85,000,000 85,000,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제한
2022타경 911	1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06-5, 301동 1층 101호 [복사출안] 81.52㎡	다세대	147,000,000 147,000,000	
2022타경 1310	1	나주시 문화로 234, 1층 107호 [빛가람동, 풀러스] 55.46㎡ [감정평가기준내부인 테라에공사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확인요]	근린시설	435,000,000 435,000,000	

●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취득요는 최고거래가격인내에 따라 결정할 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음.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3.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개> *QR코드를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하십시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1310	1	나주시 문화로 234, 1층 107호 [빛가람동, 풀러스] 55.46㎡ [감정평가기준내부인 테라에공사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바확인요]	근린시설	435,000,000 435,000,000	

● 공판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취득요는 최고거래가격인내에 따라 결정할 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음.

특수화물차용 변호판, 일반용 조작 이유는

광주경찰, 불법 증차로 유가보조금 28억 가로챌 2명 송치

특수화물차량용 변호판을 일반화물차량용으로 조작해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수화물차의 변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달고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광주지역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직 회장 A(61)씨와 직원 B(5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가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대패차(차량이 만들어진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업무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2012년 노후된 특수화물차를 사들인 뒤, 특수화물차의 변호판을 미리 준비한 일반화물차에 달았다.

이 변호판은 특수화물차량용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일반화물차량용이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된 '대패차 통보서'는 관할 구청

에 보내졌고, 그대로 통과됐다. 구청에서 서류가 통과되면 해당 변호판을 조화해도 일반화물차량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구청 담당자들은 잦은 인사교체와 규정 변경으로 업무에 미흡해 협회에서 보내준대로 서류를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반화물차 61대를 만들어, 2015년까지 일반화물차에 지급되는 정부 유가보조금 28억여원을 가로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8개의 운송회사를 만들어 61대의 일반화물차를 분배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특수화물차에 비해 일반화물차의 신규 등록이 어려워, 시세와 지급료가 높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청에서는 아직도 대패차 업무가 협회에 위탁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고발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충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 선정

일부 판사 무례한 행위도 여전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고,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고, 고압적인 태도에 이유없이 화내는 판사들'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들 중 일부 판사들의 무례한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2일 공개한 '2022년 법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 581명의 변호사 중 274명의 평가를 받은 법관 394명(타 지역 법관 포함)의 평균 점수는 85.23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공정, 품위·진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394명 중 광주지역 법관은 151명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변호사회의 최근 법관 평가 점수가 상승세라는 점이다.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3.52점(2019년) ▲83.15(2020년) ▲84.06점(2021년) 등으로 확인됐다.

올해 평가결과, 1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는 70점대로 해가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변호사회가 제시한 부적절한 사례는 재판 진행, 행동, 인사 등 다양했다. 법원이 평가에 지나치게 둔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로 연속 선정된 하위법관도 있는 것으로 변호사회는 밝혔다.

광주시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친절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구형정(37·변시 1회)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김정민(43·연수원 4기) 광주지법 형사10단부 판사, 노재호(44·" 33기) 광주지법 민사11부 부장판사, 박상현(50·" 32기) 광주지법 형사4단부 부장판사, 전일호(45·" 33기) 광주지법 형사7단부 부장판사, 조현호(52·" 29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차기현(45·변시 2회) 광주지법 등법원 판사를 선정했다. 노재호·박상현 부장판사는 각각 3년,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선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횟수, 경위, 방법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러 "피해자는 환각 환청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건전한 성격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